한국농수산대학 불교학생회 창립

12명 회원 가입, 초대회장에 박원희 법우



전주 혁신도시의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불교학생회가 창립됐다.

12명의 회원이 가입한 한국농수산대학교 불교학생회(회장 박원희)는 11월 25일 수현사에서 수현사 총무국장 응묵 스님, 전북불교회관 총무국장 우림 스님, 전북대 대불련 지도법사 동찬 스님,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김양원 전주부시장, 강성구 지도교수 등 각 신행단체장들과 대불련 총문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박원희 초대회장은 "마음 농사와 실제 농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는 불교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하고 "첫 출발하는 불교학생회가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응묵 스님은 "대사회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한 각급 신행단체장들도 축사를 통해 "위축되어 가는 청년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대학교의 불교학생회 창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지역의 대불련은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등 활발히 활동해왔으나 현재는 전북대 1곳만 남아있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韓-아세안 회의 성공 기원 문화체험

부산불교, 다문화가정 청소년 초청 행사



2019년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고 성공을 기원하며 부산불교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전통문화체험을 진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1월 22일 범어사 경내에서 아시아공동체학교(교장 박효석) 학생을 초청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한국전통문화체험'을 진행했다.〈사진〉 부산불교연합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유학생 등이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화합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전통문화 체험행사는 △전통등 만들기 △발우공양 △사찰탐방 △다도체험 등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팔각전통등을 만들어 부처님 전에 헌등(獻燈)하며 마무리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정산 스님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돕고 한국의 문화를 접함으로써 미래의 상호 우호와 협력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화엄세계 문 열다

화엄산림대법회 11월 27일 입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제49회 화엄산림대법회' 입재법회를 11월 27일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화엄산림법회는 입재 후 한 달 동안 화엄경이 설해지며 전국에서 찾는 1만여 불자들이 동참한다.

입재법회서 방장 성파 스님은 "한마디로 화엄산림법회는 마음을 닦는 법회다. 화엄법회 시작과 중간에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냥 무쇠 쇳덩이지만 법회를 마칠 때는 용천검이 될 것"이라며 "부단한 담금질을 통해 용천검이 나오듯이 시련과 고난을 통한 담금질로 마음의 평화를 얻어 행복한 사람이 되어 나오시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뛰어난 스님들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하니 마음을 잘 닦아서 큰 복을 누리고 가시길 바란다"고 대중을 격려했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12월 25일 회향하며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법회가 진행된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장안사, 천년고찰 도량정비 회향

설법전 후불탱화 점안… 8년 종합정비 마무리

2013년 불광전 증개축 시작
천년고찰 사격 어울리도록
꾸준히 도량 보수공사 추진
지역발전 돕는 문화행사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장안사 설법전 후불탱화 봉안식에서 주지 정오 스님과 내빈이 제막하고 있다.

천년고찰 장안사 설법전에 영산회상도가 후불탱화로 봉안됐다. 설법전 후불탱화 점안으로 8년 동안 이어진 장안사 도량정비 사업도 마무리됐다.

부산 기장 장안사(주지 정오)는 11월 27일 설법전에서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점안법회에는 주지 정오 스님과 불자 200여명이 동참했다.

후불탱화는 영산회상도로 백린 김동진 불모의 작품이다. 5개월간 작업 기간을 거쳤으며 점안식을 통해 사부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점안식에서 주지 정오 스님은 "장안사에서 진행한 도량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고 천년고찰인 장안사 위상을 높이 올릴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준 불보살님들과 함께 도와준 도반 및 불자들에게 감사하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안사는 대웅전이 2012년 8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771호로 지정된 후 사격에 어울리는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정오 스님은 "장안사는 신라 문무왕 시대(673년)에 원효 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라며 "도량정비를 잘해 문화유산인 장안사를 어떻게 후손에게 넘겨줄까 고민했다. 보물로 지정된 후 실마리가 풀려갔고 불사에 전념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장안사는 10년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해 2013년 불광전 증개축을 시작으로 2014년 종각 증개축, 2015년 해동전 불사, 2016년 천왕문 개축 및 석축 공사 등을 마무리했다. 2017년에는 불광교를 개통했으며 2018년에는 설법전을 신축하고 명부전도 보수 공사했다. 이후 설법전 삼존불 개금불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영산회상도 후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도량 정비뿐 아니라 역사에 걸맞은 문화재도 발굴해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재 장안사에는 보물 2점과 유형문화재 10점 그리고 민속자료 3점 등 총 15개의 문화재가 있다.

주지 정오 스님은 불사를 위해 안으로는 기도 순례 모임을 이어갔고, 밖으로는 개산대재를 봉행하고 기장군에서 활동하는 농업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등 지역 발전에도 앞장섰다.

장안사는 1000일 기도를 이어가며 매달 관음재일에 맞춰 33관음성지 기도 순례를 진행했다. 아울러 부산 기장을 대표하는 천년고찰로서 개산대재를 봉행하며 가을국화축제 및 사진 공모전으로 문화행사도 병행하고, 불자들과 시민이 쉬어가는 힐링처로도 자리매김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회향 법석에서 마지막으로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설했다.

정오 스님은 "끝까지 보살도를 이루기 위해 정진하고 마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바란다"며 "기장 불교를 위해서도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여러 불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끝으로 "장안사 주지로서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못다 한 대웅전 개축불사를 완성하는 일이다. 공심의 마음으로 세운 원력이 완성되기를 불전에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방의무 다하는 젊은이 응원"

전북 순창사암연합회 민관군경 어울림마당



순창 민관군경 어울림 마당에서 경기를 즐기는 참가자들.

전북 순창사암연합회(회장 동산, 대모암 주지)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근무하는 젊은이들을 초청해 민관군경 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11월 27일 순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동산 스님을 비롯해 강천사 주지 정오 스님, 영천사 주지 종혜 스님, 순평사 주지 타홍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황숙주 순창군수, 정성균 순창군의장, 35사단 순창대대장 김수일 중령, 권혁창 순창지역대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순창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순창 적성부대, 순창 경찰서 의경, 순창 상비역중대, 순창군청 사회복무요원, 순창군 체육회 임원들은 배구와 족구 등 운동경기와 공연, 각 장기자랑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산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고향을 떠나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과 전의경, 사회복무요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불자들의 도움으로 소박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상호 우정과 화합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사암연합회 스님들은 장병여러분들을 위해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관계자들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준 순창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불자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참석한 장병들에게는 기념품과 간식, 음료 등이 제공됐으며, 장기자랑을 통해 입상한 장병들에게는 기념품과 지역 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순창사암연합회장 동산 스님은 1625부대 이명호 원사와 순창군 문화체육관광과 강신영 주무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순창사암연합회는 정기적으로 순창경찰서 의경과 군부대를 지원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나눔 부산본부 제14회 희망콘서트

11월 21일 부산시민회관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11월 21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제 14회 2019 생명의날 100원 희망불씨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생명나눔부산은 한 해 물심양면 후원 봉사한 단체와 봉사자에게 봉사상과 감사패를 수여하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봉사상은 한덕순 부산포교사단 前팀장과 신용숙 불자가 수상했으며, 감사패는 곽성균 부산은행 사회공헌 팀장과 사단법인 미소원 장유정 이사장이 받았다. 또한 생명나눔 활동 지원으로 노력을 기울인 해암 스님과 성문 스님은 부산시장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부산관광버스기사 불자회와 사단법인 미소원은 1년 동안 저금통을 나눠 모은 수익금 105만원과 747만5120원을 생명나눔부산에 후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